

##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결과 분석

김진건 소장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의대로부터 증원수요와 그에 따른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의대 증원 2,000에 대한 세부적인 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수요 최소\_최대(2023년 11월)**

구분	202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소	3,058	2,151	2,288 (+137)	2,449 (+161)	2,649 (+200)	2,719 (+70)	2,738 (+19)
최대	(현)	2,847	3,057 (+210)	3,419 (+362)	3,696 (+277)	3,882 (+186)	3,953 (+71)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의학교육 내실화\_의과학자 육성, 감염병 위기 대응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 수요조사 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의학 교육 내실화와 의과대학 육성 그리고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큰 비전하에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 정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정도 증원되어야 한다는 수요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2024년 2월)**

<b>2024학년도</b> 3,058명	⇒	<b>2025학년도</b> 5,058명
--------------------------	---	--------------------------

전체 증원 규모 발표, 지역별·대학별 미확정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집중 배치가 원칙

지역인재전형 비율 40% ◊ 60% 확대 계획

↓

대교협 승인 후 2025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2024년 4월 중하순)

작년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최종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증원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최종 배정 결과

지역	대학	현정원	신청인원	배정	2025정원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365	0	135	
		연세대	110		0	110	
		한양대	110		0	110	
		경희대	110		0	110	
		고려대	106		0	106	
		가톨릭대	93		0	93	
		중앙대	86		0	86	
	이화여대	76	0	76			
	계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인천	인하대	49		71	120	
		가천대	40		90	130	
계	209	565	361	570			
수도권 전체		1,035	930	361	1,396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미)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경)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단국대(천)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건국대(충)	40		60	100	
	충남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전체		2,023		2,471	1,639	3,662
	총계		3,058		3,401	2,000	5,058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치 원칙에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는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권인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는 현재 정원의 두 배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배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졌지만 현 정원이 40명으로 많았음을 참고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증원은 361명으로 전체 증원 2,000명 기준 18% 비중입니다.

배정 결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해야 할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국립경상대가 정원 200명으로 매머드급 의대로 격상되었습니다. 증원 인원 기준으로는 충북대가 151명, 국립경상대가 124명으로 큰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이 현재 40%에서 6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소재 고교에 진학중인 학생들의 의대 준비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지원을 위해 중학교부터 지방 소재 중학교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의대 합격선이 하락하고, 도미노처럼 치의예, 한의예, 약학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일반학과 입결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이 5,058명까지 2,000명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집인원 4,841명 중 의대 합격권은 비율상으로 4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종로학원 정시 분석 기준으로, 국수탐 백분위 기준 기존 합격권이 285.9점이라면 2,000명 증원에 따라 4.5점 정도 낮아진 281.4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 뿐만 아니라 수시 내신도 입결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40%에서 60%로 확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합격선 하락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대의 경우 비수도권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의 의예과 도전, 직장인부터 N수생까지 합류하면서 수도권 의대의 경우 하락의 폭이 적거나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